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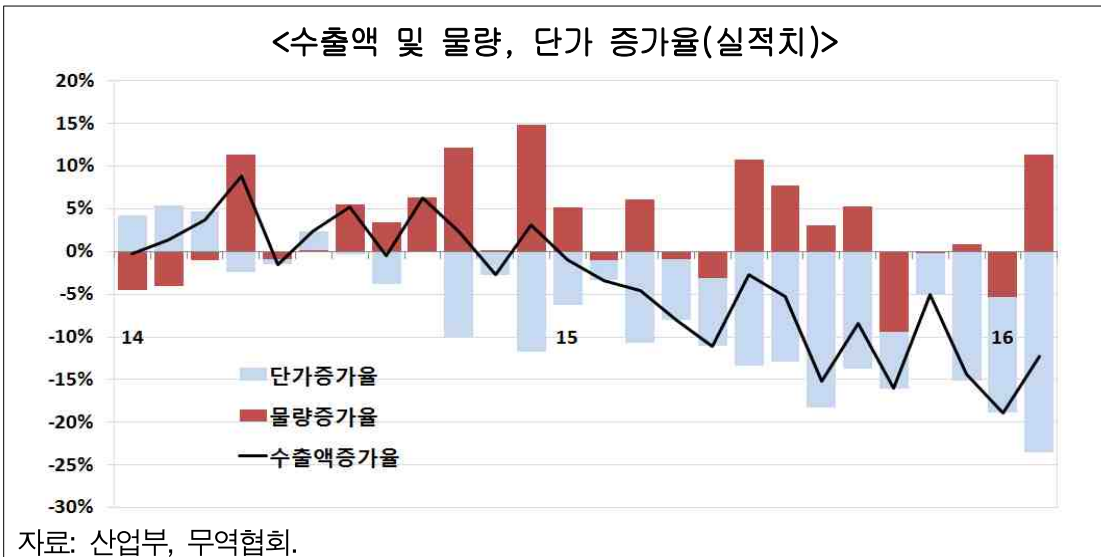
# 현안과 과제

■ 단가 및 물량 추세로 살펴 본 수출경기 방향성 판단  
- '수출절벽 탈출'과 '침체 장기화'의 기로에 선 수출

Executive Summary

■ 개 요

최근 수출 부문의 최대 이슈는 수출 감소세의 지속 기간이다. 수출 감소세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개월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수출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3월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15개월 연속 감소'라는 타이틀이 붙게 된다. 나아가 과연 우리 수출이 언제까지 최악의 감소 기록을 지속할지 그리고 언제쯤 증가세로 돌아 설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① 수출액증가율, 물량증가율, 단가증가율에 대한 추세적인 움직임만을 고려하여 수출 경기의 방향성을 예측해 보았다. ② 그리고 수출액을 물량과 단가로 분해(수출 = 물량 × 단가, 수출액증가율 = 물량증가율 + 단가증가율)하여 최근 수출 침체에 대해 어떤 요인에 의한 설명력이 큰 지를 확인해 보았다. ③ 마지막으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하여 단가 및 물량의 추세적인 움직임을 살펴보고 각 품목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가늠해 보았다.

다만 대부분의 분석은 우리에게 친숙한 전년동월비 증가율(정확히는 원계열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의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경기 왜곡 현상(최근의 경우에는 증가율의 급락)을 가능한 제거하기 위해 주된 분석 지표로 연구원 자체적으로 계산된 계절조정계열의 전년동월비 증가율을 이용하였다.

■ 최근 수출경기의 추세적 주요 특징

첫째, (수출액 증가율 추세) 수출 경기는 상반기중 경기전환점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수출 감소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말경을 전후로 추세상 전월비 수출증가율의 감소폭이 더 커지지 않고 있는 경기 전환점의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여기에 전월비 증가율의 경기전환점이 전년동월비 증가율의 전환점에 약 4개월 선행한다는 과거의 경험을 적용하면 **상반기중 수출 감소세가 더 커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경기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감소폭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수출의 경기 회복기(확연하게 수개월 이상 증가세를 지속하는 시기)는 국제 원자재가의 기저효과가 완화되는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는 연중으로 수출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 경우 올해 연간 수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

**둘째, (물량 및 단가 증가율 추세) 최근 수출 경기 침체의 주된 요인은 수출 단가의 급감이며 전체 수출 물량은 제한적인 증가 추세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수출액 감소는 단가감소효과가 물량증가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이며, 단가감소효과는 물량증가효과에 약 6~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근 업종별 수출액 증가율) 최근 수출액 증가율 추세로 살펴보면 13개 품목 중 9개 품목이 감소 국면에 위치하여 수출 경기 전반에 불황 탈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석유제품, 석유화학, FDP, 가전, 철강 등의 품목은 추세선상에서 수출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증가세로의 전환은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다. 한편, 선박,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은 수출액 추세 상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현 수출 경기 국면상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넷째, (최근 업종별 물량 및 단가 증가율) 최근 수출 단가와 물량 증가율의 추세로 살펴보면 단가와 물량이 모두 증가하는 호황 업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철강, 선박, 석유화학, 반도체, 석유제품 등은 수출 단가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수출 물량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다음으로 신발, 기계, FDP,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은 수출 물량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수출 단가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섬유류, 가전, 자동차 등의 품목은 물량과 단가가 모두 감소 추세에 있어 향후 수출경기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내포한다. 특히 이들 품목들은 최근 1년 동안 물량증가율과 단가증가율이 점차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장상황의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관련 업계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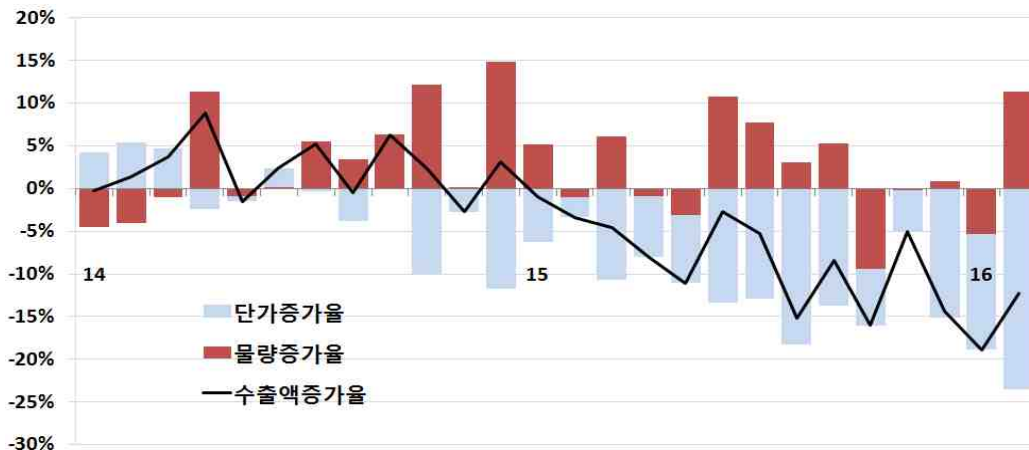
## ■ 시사점

**현재의 수출 경기의 침체는 극적인 반전이 있을 경우 개선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당분간 지속될 우려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수출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근 수출 침체에는 구조적 요인과 단기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처방의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중국시장을 제외하고 수출경기의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중 FTA의 활용도 제고, 중국 정부에 대한 세일즈 외교 강화, 고성장 지역에 대한 시장 진출 노력 등을 통해 대 중국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한-이란 FTA의 추진, 인도시장의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한 수출 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향후 수출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응한 유연한 경제 운용방향 수립이 필요하다.

## 1. 개요1)

- 최근 수출 실적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현 수출 경기 국면과 향후 경기 방향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는 측면이 존재
  - 매월 발표되는 수출 증가율이 전년동월에 대한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출 여건의 급변과 일시적 요인으로 왜곡되는 경향이 존재
    - 통상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되는 매월 수출입동향의 통계는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의 증가율(즉, 작년 같은 달에 비해 수출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이 핵심임
    - 전년동월대비 수출증가율은 통상의 여건 하에서는 수출 경기 사이클을 분리해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그러나 최근과 같이 수출 여건이 급변하거나, 일회적 성격의 교란 요인으로 조업일수가 변동될 경우 전년동월에 대한 기저 효과로 실제의 수출경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
  - 특히 최근 수출액을 수출 단가와 물량으로 분해 볼 경우 수출액 및 단가는 대체적으로 추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물량은 매우 불규칙한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추세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

<수출액 및 물량, 단가 증가율(실적치)>



자료: 산업부, 무역협회.

1) 본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수출경기의 중장기적 추세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업종별 단기적 수출 실적과는 괴리가 존재할 수 있음.

○ 이에 계절조정계열의 전월비 수출증가율을 이용하여 전체 수출과 주력 수출 품목들의 수출액, 단가, 물량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

- 수출 추세 분리 방법

- 수출 실적치(금액, 물량)에 대하여 계절조정 계열을 재구축하고 이에 대해 추세를 추정함<sup>2)</sup>
- 이에 대하여 전월비 증가율을 계산하고 단가 증가율은 작성의 편의상 금액 증가율에서 물량 증가율을 차감한 값을 사용함
- 보조적으로 수출 실적치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의 추세도 추정하여 계절조정 계열의 전월비 증가율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함

- 분석 대상 기간 및 품목

- 본 보고서의 주된 분석 대상 기간은 2010년 1월 ~ 2016년 2월임
- 분석 대상 품목은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부품포함), 선박, 기계, 가전, FDP<sup>3)</sup>,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섬유류, 신발의 13대 품목임<sup>4)</sup>

- 본 분석 방법의 한계성

- 다만 계절조정 계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절조정 인자로 구성된 조정 방법이 있어야 하나,
- 다른 어떤 계절조정 방법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완벽한 계절조정계열을 구축했다고 말할 수 없음
- 또한 시계열 자료의 추세를 구하는 방법들은 대체로 최근의 실적치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추세 증가율이 수출 경기의 방향성을 완전히 대표한다고는 말하기 어려움
- 한편 주력 업종의 수출 물량은 세부 업종들의 물량을 단순히 합한 것이기 때문에 구성상 하위 분류의 특정 업종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경우 상위 업종의 물량을 왜곡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기 바람

2) 계절조정방법은 X12 ARIMA를 이용하였으며 추세는 HP필터링을 통해 추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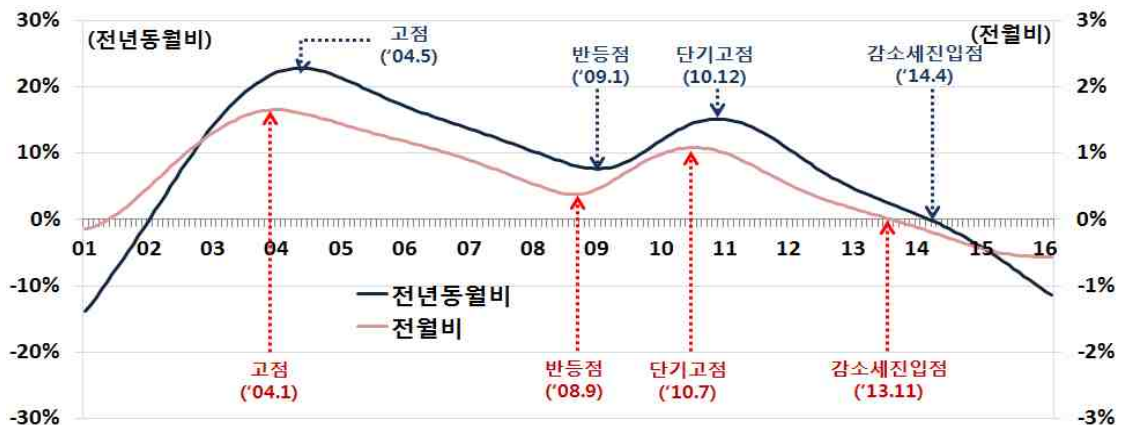
3) FDP(Flat Display Panel, 평판디스플레이)는 LCD, PDP 등이 포함됨.

4) 2015년 연간 기준으로 이들 품목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1%임.

## 2. 최근 수출경기의 추세적 주요 특징

- (수출액 증가율 추세) 수출 경기는 상반기중 경기전환점(감소폭이 더 커지지 않는 시점)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수출 감소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전월비 수출 증가율은 추세적으로 감소폭이 더 커지지 않고 있으나, 증가세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전월비 수출 증가율은 추세적으로 2013년 말경 감소 기조로 전환되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수출 감소폭(감소율)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임
    - 이는 수출 경기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될 가능성을 일정 부분 나타내 줄 수 있다고 생각됨
  - 전년동월비 추세 증가율은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으며 증가세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
    - 전월비 추세 증가율과 달리 전년동월비 추세 증가율은 전년동월에 대한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아 수출경기의 추세를 급격한 하강 모습을 보이는 왜곡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됨
    - 한편, 전월비 증가율의 경기전환점이 전년동월비 증가율의 전환점에 약 4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수출의 경기 회복기(확연하게 수개월 이상 증가세를 지속하는 시기)는 국제 원자재가의 기저효과가 완화되는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나, 최악의 경우에는 연중으로 수출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

<중장기 수출액 증가율 추세>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물량 및 단가 증가율 추세) 최근 수출 경기 침체의 주된 요인은 수출 단가의 급감이며 전체 수출 물량은 제한적인 증가 추세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

- 최근 수출액 감소는 단가감소효과가 물량증가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이며, 단가감소효과는 물량증가효과에 약 6~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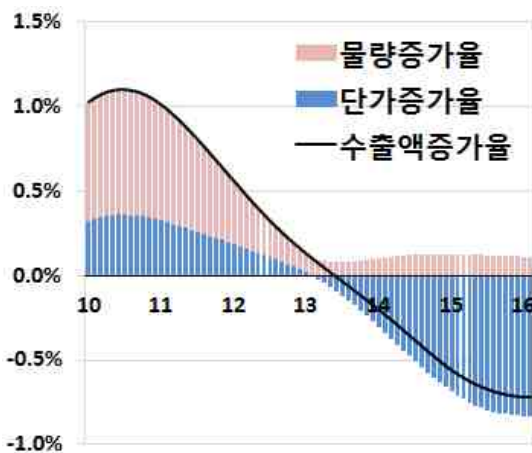
- 전월비 추세 증가율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0.7%이며 이중 단가 감소 기여도가 -0.8%p, 물량 증가 기여도가 0.1%p
- 전년동월비 추세 증가율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11.9%이며 이중 단가 감소 기여도가 -14.4%, 물량 증가 기여도가 2.5%p
- 이에 따라 절대값으로 보면 수출액에 대한 단가감소기여도는 물량증가기여도의 전년동월비 기준 약 6배, 전월비 기준 약 8배의 크기를 가짐

- 최근에 들어 전월비 기준으로 물량증가율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냄

- 전월비 기준 물량증가율은 2015년 초를 정점으로 최근까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단가증가율은 감소세를 지속하나 감소폭이 둔화됨
- 전년동월비 기준 물량증가율은 2014년 이후 소폭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단가증가율은 급격한 하락세를 시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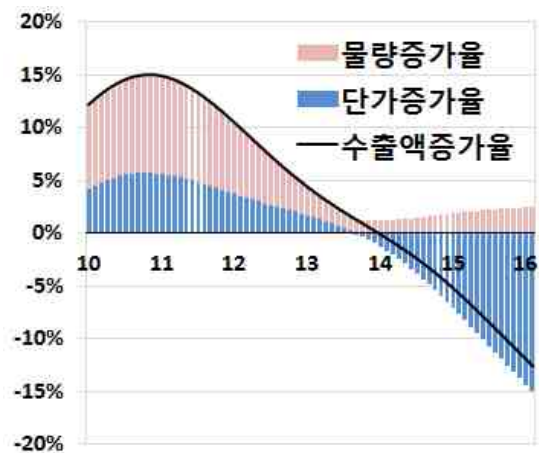
<수출액 추세증가율의 물량 및 단가 분해>

(계절조정전월비)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원계열전년동월비)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최근 업종별 수출액 증가율) 2016년 2월 기준으로 수출액 증가율 추세로 살펴보면 13개 품목중 9개 품목이 감소 국면에 위치하여 수출 경기 전반에 불황 탈출이 쉽지 않은 상황

- 석유제품, 석유화학, FDP, 가전, 철강 등의 품목은 추세선상에서 수출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증가세로의 전환은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존재

· 2016년 2월 기준으로 수출 추세의 전월비 증가율 기준으로 석유제품(-2.9%), 석유화학(-1.3%), FDP(-1.2%), 가전(-0.9%), 철강(-0.9%) 등의 품목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섬유류(-0.6%), 자동차(-0.5%), 신발(-0.2%), 기계(-0.2%) 등도 소폭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선박,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은 가장 최근 시점의 수출액 추세 상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현 수출 경기 국면상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2016년 2월 기준으로 수출 추세의 전월비 증가율은 선박이 0.0%, 반도체가 0.1%, 무선통신기기 0.7%로 나타남

<업종별 최근(2016년 2월) 수출액 추세 증가율(S.A. 전월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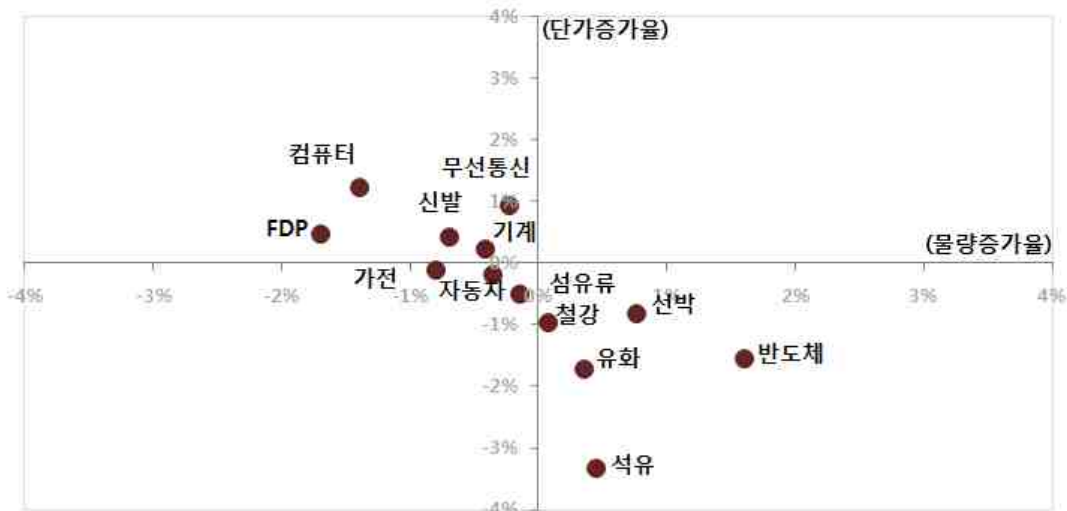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최근 업종별 물량 및 단가 증가율) 2016년 2월 시점의 추세상 수출 단가와 물량 증가율을 살펴보면 단가와 물량이 모두 증가하는 호황 업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물량 증가 - 단가 감소 업종) 철강, 선박, 석유화학, 반도체, 석유제품 등은 수출 단가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수출 물량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모습
- (물량 감소 - 단가 상승 업종) 신발, 기계, FDP,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은 수출 물량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수출 단가가 증가함
- (물량 감소 - 단가 감소 업종) 섬유류, 가전, 자동차 등의 품목은 물량과 단가가 모두 감소 추세상에 있어 향후 수출 경기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름 가능성을 내포함
  - 특히 이들 섬유류, 가전, 자동차 등의 품목은 최근 1년 동안 물량과 단가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최근의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sup>5)</sup>

<업종별 최근 수출 추세의 단가 및 물량 증가율(S.A. 전월비 기준)>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5) 【별첨 2】 업종별 물량 및 단가 증가율 변화 및 【별첨 3】 주요 수출 품목의 계절조정계열 추세의 전월비 증가율을 참조.

### 3. 시사점

- 최근 수출경기의 방향성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단기간 내 수출이 확연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데에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임
- 이에 '수출 절벽'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출 진작 노력과 '수출의 내수로의 불황 전염'을 차단할 수 있는 선제적인 경기 안정화 노력이 필요함

첫째, 최근 수출 침체에는 구조적 요인과 단기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처방의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 현재 시급한 것은 경쟁력 저하라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해외 수요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단기적이고 유연한 대응임
- 따라서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 변화 및 해당국 정부의 교역 정책 기초, 경쟁국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 등 수출 기업들이 필요한 시장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수출 진작과 우리 기업들의 수출 전략이 유연하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중국시장을 배제하고 수출경기의 개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중 FTA의 활용도 제고, 중국 정부에 대한 세일즈 외교 강화, 고성장 지역에 대한 시장 진출 노력 등을 통해 대 중국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은 2015년 기준 26%(홍콩 포함시 32%)에 달하고 있는데, 지난 2월 주요 지역 수출 중 중국만이 감소세를 기록

- ※ 2016년 2월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대 미국 4.2%, 대 EU 5.0%, 대 ASEAN 10.3%, 대 중국 △12.9%
  - 전반적인 수출 경기 회복은 대 중국 수출 회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 수출기업들의 한중 FTA의 활용도를 높여 수출 부진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임
  - 중국 경제는 대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소폭 하락하더라도 수입재화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거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세일즈 외교적 접근을 통해 한중간 G2G(정부간 거래) 확대, 공공발주의 한국 기업 참여 등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 2015년 중국의 총수입액은 1조 6,000억 달러이며 한국 대 중국 수출액은 1,700억 달러 수준임
  - 중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내 지역별 경제성장률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고성장 지역에 대한 수출시장 진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 2015년 4분기 중국의 31개 지역중 충칭(11.0%), 티베트 자치구(11.0%), 구이저우성(10.7%), 톈진(9.3%), 장시성(9.1%), 푸젠성(9.0%) 등 21개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8%를 상회하고 있음(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지역임)
- 셋째, 한-이란 FTA의 추진, 인도시장의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한 수출 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
- 최근에 개방된 이란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예정되어 있는 정상 외교의 경제적 성과 가시화, 한-이란 FTA의 추진 등이 필요함

- 인도의 경우 현재 모디 정부가 추진중인 제조업 육성을 위한 '메이크 인 인디아', IT 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인디아' 등의 정책을 고려하여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관계 강화 노력이 요구됨

넷째, 향후 수출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응한 유연한 경제 운용방향 수립이 필요하다.

- 수출 절벽의 장기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에서 내수로 불황이 전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요구됨
-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보다 확대하여 기업 심리의 급랭을 방지해야 할 것임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별첨 1】 보고서 상 업종과 대응되는 MTI 분류

<보고서 업종과 MTI 코드 매칭표>

품 목		MTI code
경공업	섬유류(의복포함)	4
	신발	512
중화학 공업	석유제품	133
	석유화학	21
	철강제품	61
	자동차(부품포함)	741
	선박	7461
	기계	71+72+73
	가정용전자제품	82
	IT 품목	
	무선통신기기	812
	컴퓨터	813
	반도체	831
FDP	8361	

【별첨 2】 업종별 물량 및 단가 증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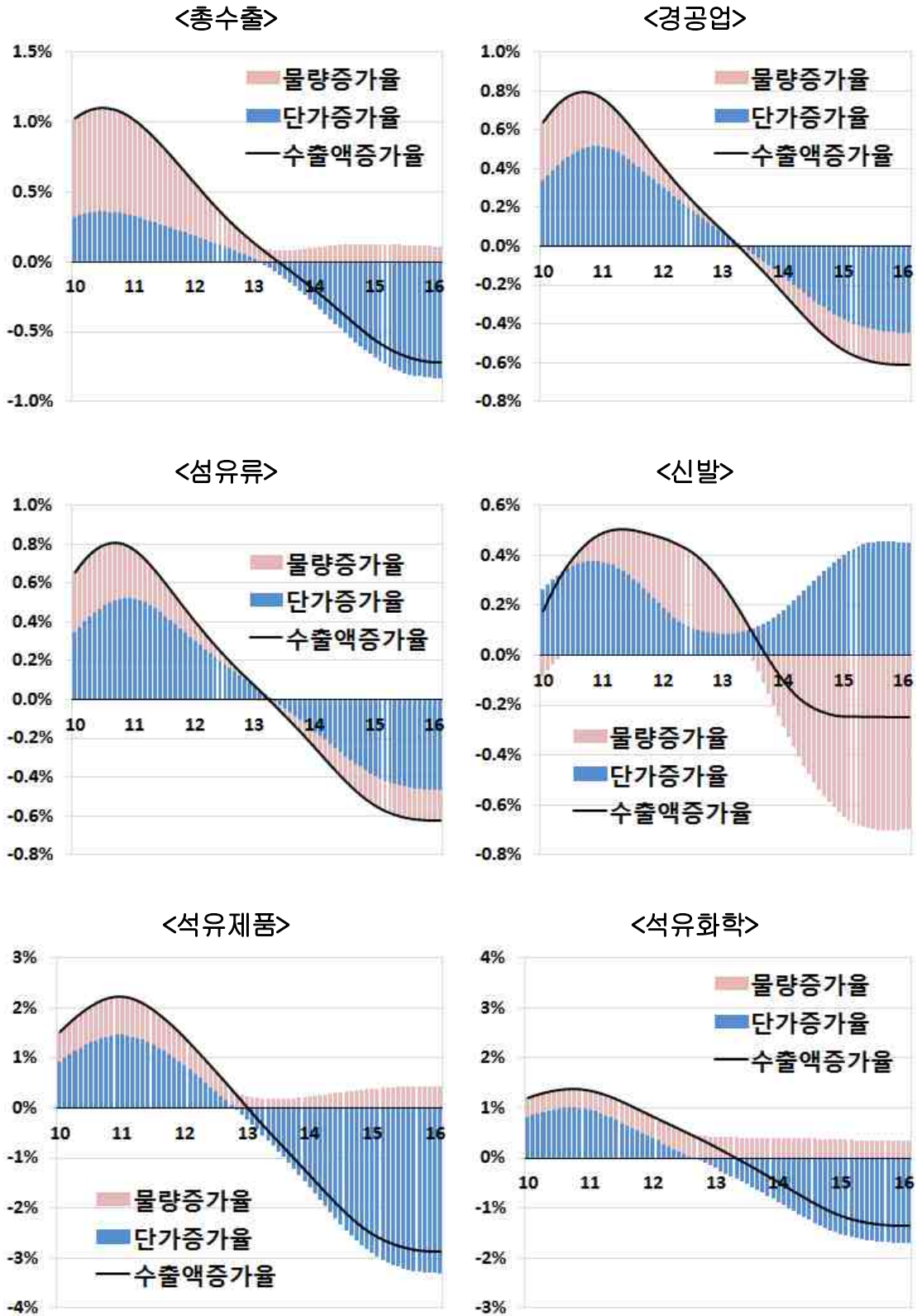
- 단가 및 물량 증가율의 최근 1년 동안의 추세를 살펴보면, 「단가증가율 개선 - 물량증가율 악화」 업종, 「단가증가율 악화 - 물량증가율 개선」 업종, 「단가증가율 악화 - 물량증가율 악화」 업종의 세 그룹으로 구분
  - 「단가증가율 개선 - 물량증가율 악화」 업종: 무선통신, 신발
  - 「단가증가율 악화 - 물량증가율 개선」 업종: 석유제품, 선박, 기계, 반도체, 컴퓨터
  - 「단가증가율 악화 - 물량증가율 악화」 업종: 섬유류,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가전, FDP

<업종별 최근 1년간 수출 추세의 단가 및 물량 증가율 변화(15.2~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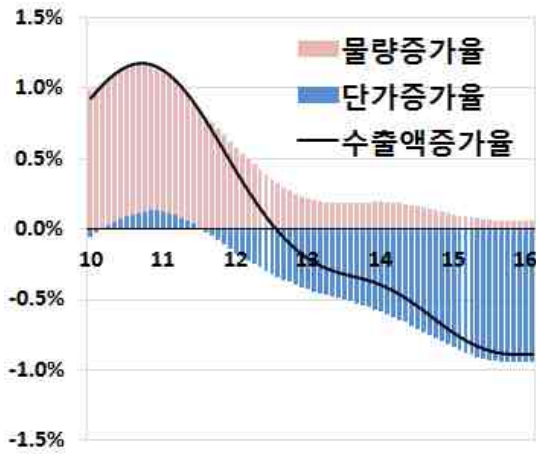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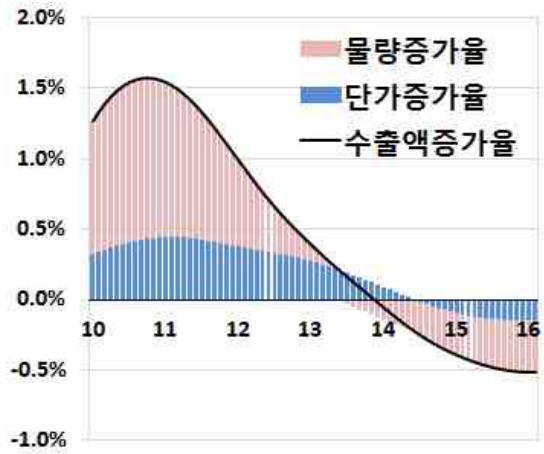
【별첨 3】 주요 수출 품목의 계절조정계열 추세의 전월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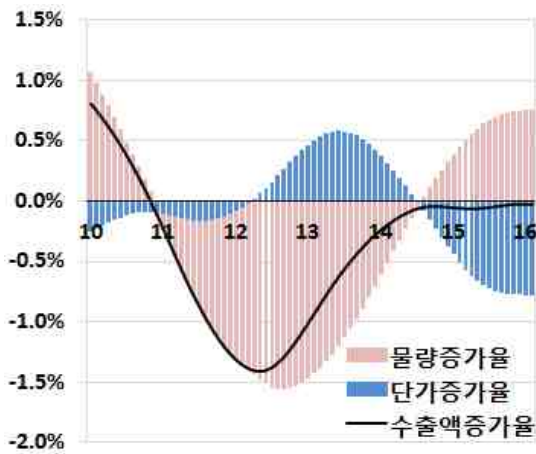
<철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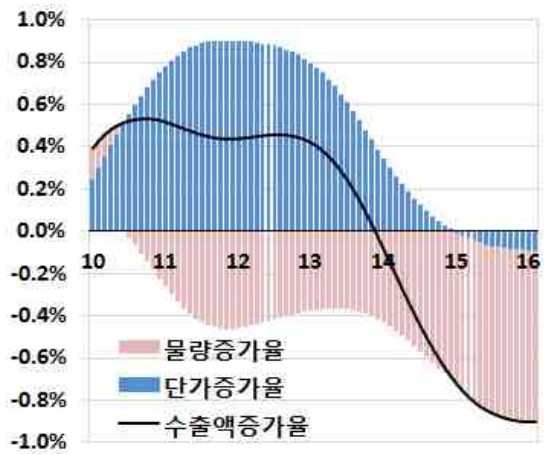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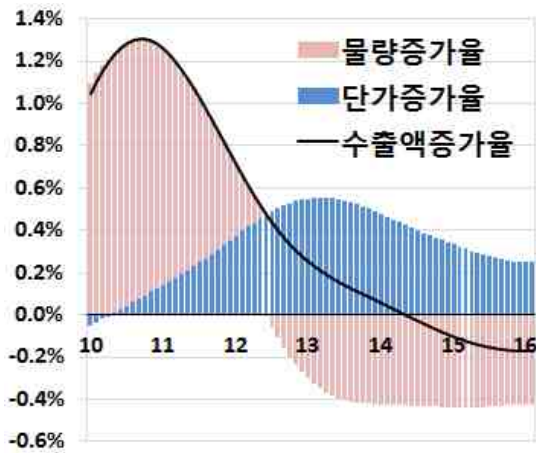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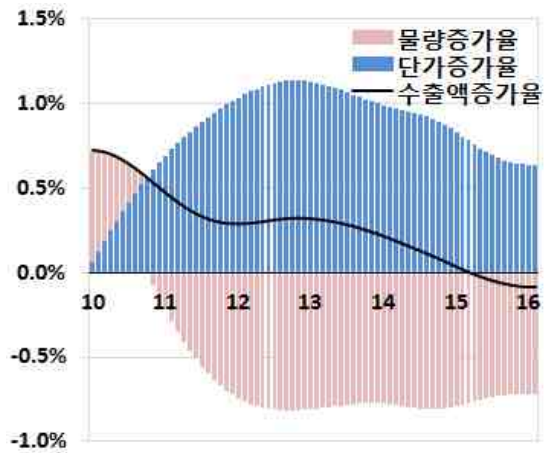
<가전>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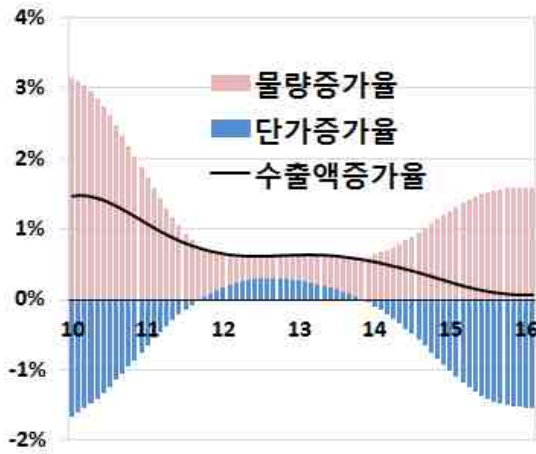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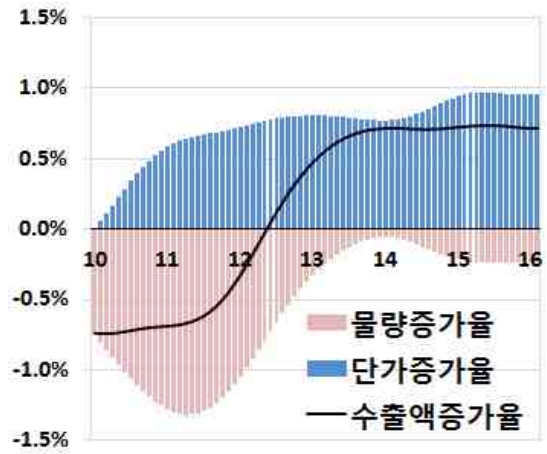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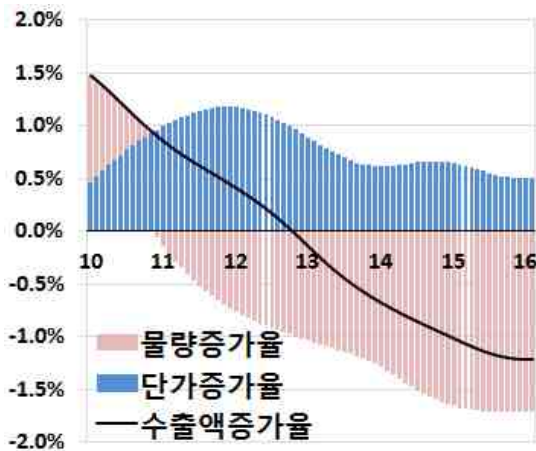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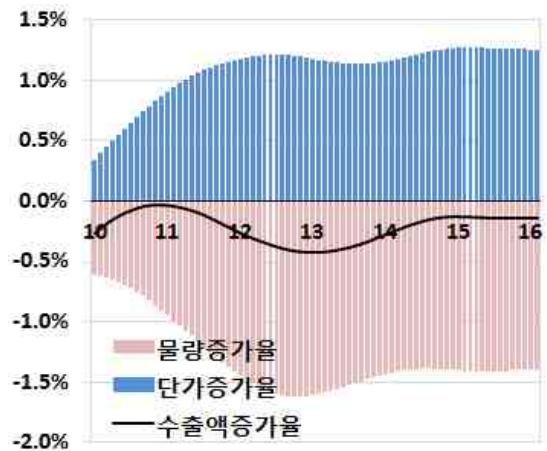
<무선통신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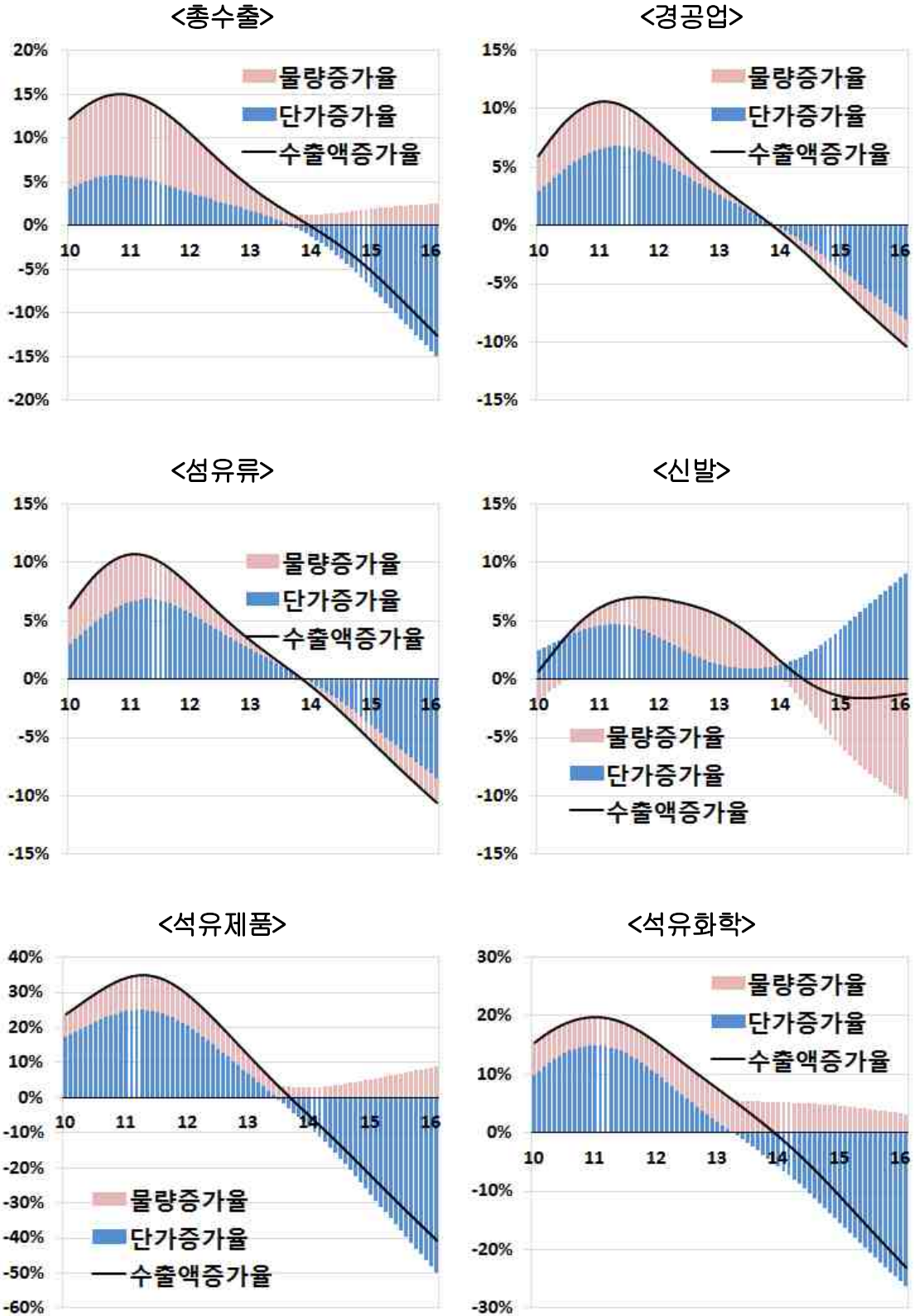
<F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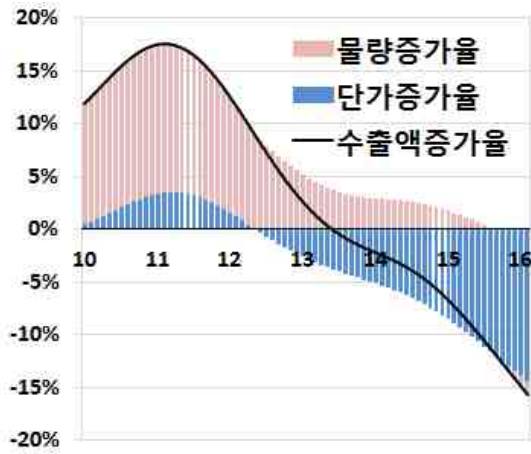
<컴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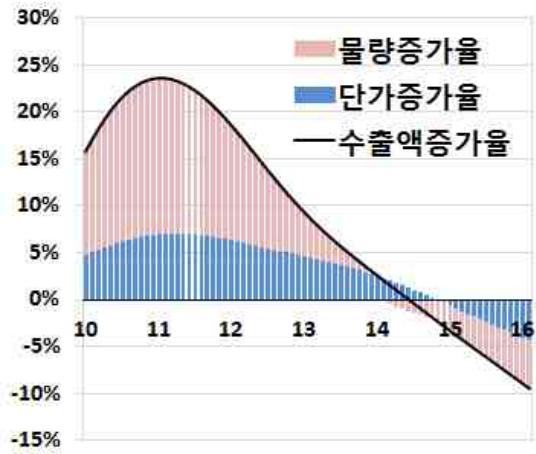
【별첨 4】 주요 수출 품목의 원계열 전년동월비 증가율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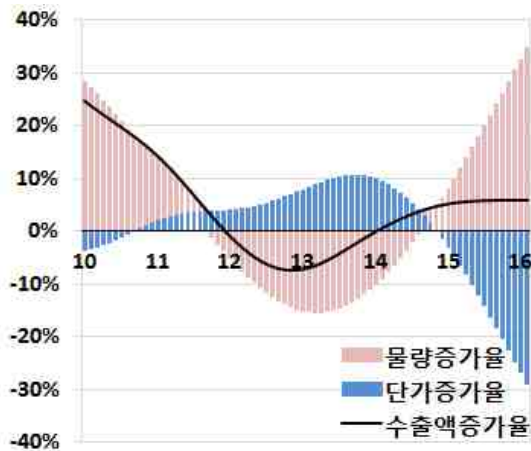
<철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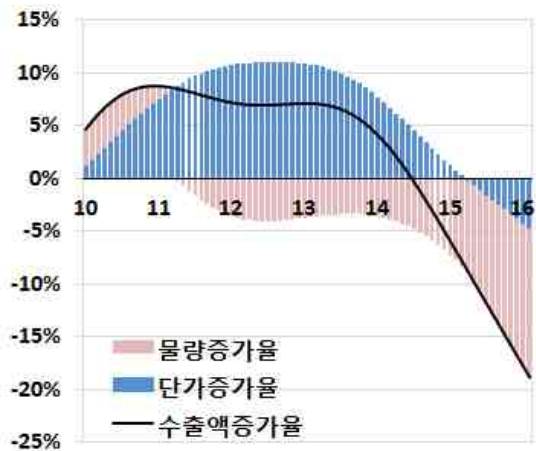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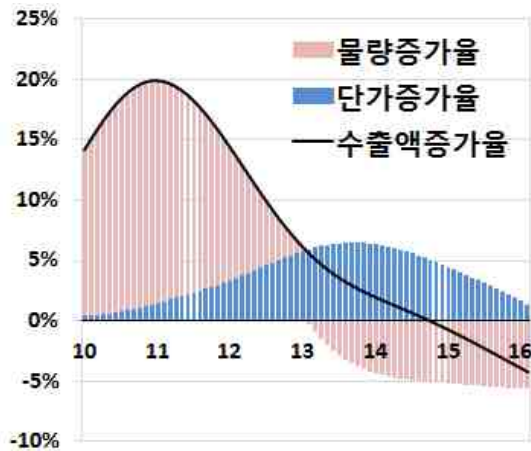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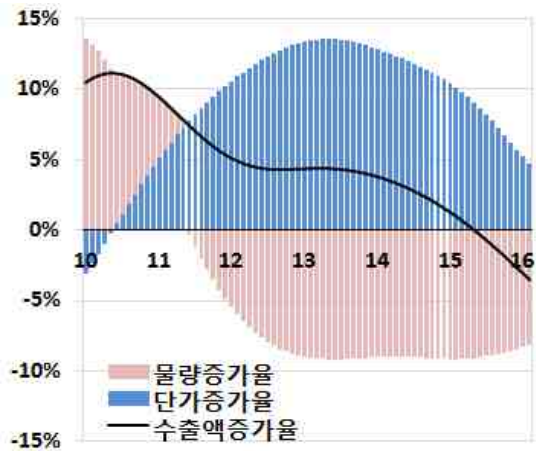
<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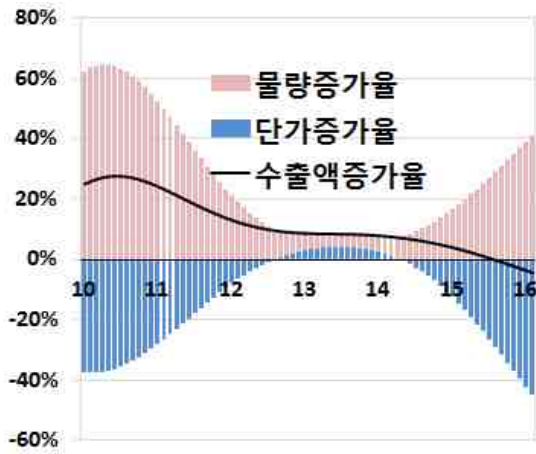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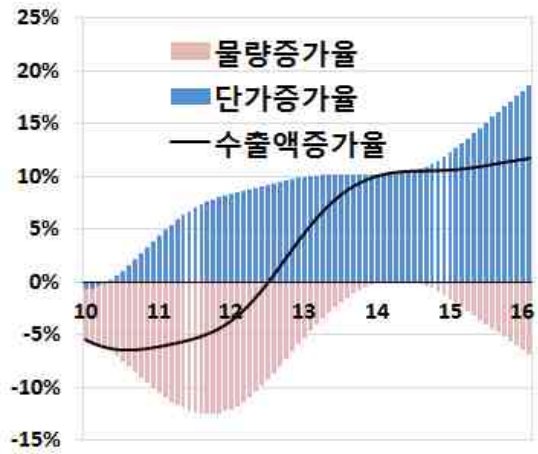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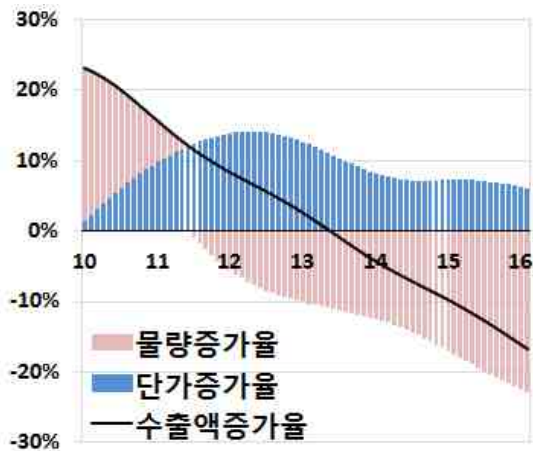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FDP>



<컴퓨터>

